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6일 월요일 음 1월 16일 (8돌)

백록담

기상정보

흐리고 비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4~7°C로, 낮 최고기온은 11~12°C로 예상된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식중독지수 관심, 감기가늘지수 주의

Table with air quality (PM10) forecasts.

Table with air quality (PM2.5) forecasts.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8/14°C, 모레 구름많음 5/13°C

월드뉴스

중국 대학생들 “결혼 필수 아냐”

가족계획협회 등 조사 결과

중국 대학생들은 결혼이 더 이상 인생에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당국의 출산 장려책들은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거의 바꾸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중국 상하이 거리의 한 가족. 연합뉴스

“가정을 꾸리기 전 경력을 쌓는 것이 남녀 모두에 있어 주요 원칙이 됐으며 출산의 고통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갖는 주된 두려움이다”고 전했다.

또 출산 장려책들은 젊은이들의 가정을 꾸리려는 의지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대학생들은 결혼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본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가족계획(계획생육)협회, 중국청년망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보고서는 중국 대학생들이 옛 세대와 다른 결혼·출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남성으로부터 독립이 현대 여성의 상징이 됐으며 정서적 기반과 직업적 안정성이 결혼의 전제조건이 됐다”며 “결혼은 더 이상 성관계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대부분의 대학생은 더 이상 이혼도 부

산림녹화의 기적, 이제 바다로...



현영중 편집부국장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가장 놀라는 것은 바로 나무이다. 아름답고 가로수들과 도로변 야산의 수림을 보고는 “제대로 된 나라에 왔구나”하는 감탄과 함께 안정을 되찾는다고 한다.

우리는 산림녹화에 성공한 세계 유일의 나라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도 1982년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인정했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산림녹화에 힘을 쏟아 부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온 국민이 녹화사업에 뛰어들었다. 새로운 수종이 개발·보급되고, 산림 관련 기술 등이 체계화되며 국토의 65% 이상을 산림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제주바다가 신열을 앓고 있다. 갯녹음이화 만성화되면서 불모의 공간으로 퇴락하고 있다. 2021년 11월 녹색연합이 발표한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같은 해 9~10월 사이 도내 97개 해안마을의 공간대 200곳을 조사한 결과다.

갯녹음이란 무절 석회조류가 바다의 암반을 뒤덮는 현상을 일컫는다. 석회조류가 하얗게 보이기 때

문에 백화현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석회조류에서는 패조류가 살아남기 어렵다. 갯녹음이 심한 곳에서는 미역·다시마·감태 같은 대형 해조류가 자랄 수 없다.

그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연안 개발, 환경 오염, 기후변화, 조식동물 증가 등이 지목돼 왔다.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가 며칠 전 의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인하대·경희대·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독도 주변 해역에서 성게 제거 작업이 해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다.

년에 걸친 제거 작업으로 성게 밀도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해조류 피복률이 평균 21%에서 28%로 증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갯녹음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제주에서는 해수온도 상승, 오염물질 증가 등을 원인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연구 결과처럼 갯녹음이 심한 도내 연안에서도 자잘한 성게들이 군집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도있는 조사·분석이 절실한 이유다.

엘린마당

“2월부터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이 단비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경제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영화, 도서, 전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카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만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1인당 연간 11만원의 지원금이 지급

된다. 대상자들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내항공권, 공방체험, 사진관, 체육시설(헬스, 요가, 볼링 등) 등 문화 분야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난방비 폭탄시대, 에너지바우처로 겨울나기



백정화 서귀포시 예래동

계묘년 새해부터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오며 가스 사용량이 급증해 ‘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대상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분을 2월 8일 이후부터 자동 충전

돼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4인 세대 동절기 바우처는 기준 2배 인상된 58만3600원이 지원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청해 뒤는 난방비 시대에 지갑을 지키길 바란다.

보통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씩 낮아진다고 한다. 난방비 인상은 피부로 와닿는 고통이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정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이윤형,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우량 감귤묘목 우수 품질의 감귤묘목만 생산하여 직접 판매합니다. 레드향·천혜향·황금향 한라봉·궁천 오하라베니·조경용 하귤. 제주감귤묘목영농조합법인 010.7204.1286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푸른지게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010-4450-4316 / 010-6550-4316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레드향 1~5년생. 사리향, 탐나는봉, 원터프린스, 황금향, 카라향, 천혜향, 하례조생, 미니향, 레몬, 탐라향 5년생(화분), 궁천, 일남일호, 유래(1~5년생), 천전(가와대) 조생.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만감류: 원터프린스 1년생~2년생, 카라향 1년생, 천혜향 1년생, 한라봉 1년생, 미니향 3년생, 제라론 3년생, 하귤(아마나스)1~2년생. 극조생 & 조생: 궁천조생 1~4년생, 유라조생 1~2년생, 유라실생 1~3년생, 히노야까리 4년생. 포트묘목: 유라조생, 하례조생, 원터프린스, 레드향, 하귤, 천혜향, 오하라베니, 제라론, 미니향, 황금향, 한라봉. 민성종묘 010-3694-5423 / 010-8948-1082